

濟州의 傳承遊戲謠

左 惠 景*

I. 머 리 말

지금까지 韓國傳承童謠의 수집이나 연구는 다른 口碑文學에 비해 부진한 편이며 이론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傳承童謠의 연구는 민요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 연구되어 왔으며, 수집 역시 민요수집의 부산물로 몇몇 민요집¹⁾에 함께 수록되거나 동요집²⁾으로 간행된 바 있지만 獨自性을 띠지 못한 데다가 世態에 밀려 사라지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傳承童謠의 綜合研究를 위해, 곧 전체조명을 위한 하나의 部分研究로서 濟州의 傳承童謠 가운데, 遊戲謠에 집중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뜻이 여기에 있다.

童謠에는 어린이가 주제가 되어 口傳되는 傳承童謠와 어른이 어린이를 위하여 창작한 創作童謠로 크게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傳承童謠만을 대상으로 하며, 濟州地域의 傳承遊戲謠에 국한하여 논의하려 한다.

* 제주시 용담동 597-12 (Tel:27-6947)

- 1) 김소운 ; 「조선구전민요집」, (동경 : 第一書房), 1933.
김사엽 · 최상수 · 방중현 ;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임동권 ; 「한국민요집」, 동국문화사, 1961.
_____ ; 「한국민요집 Ⅲ」, 집문당, 1975.
_____ ;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김영돈 ; 「제주도민요연구(上)」, 일조각, 1965.
- 2) 엄필진 ; 「조선동요집」, 장문사, 1924.
김소운 ; 「조선동요선」, 岩波書店, 1933.
김소운 ; 「구전동요선」, 博文書館, 1940.
박두진 ; 「한국전래동요독본」, 을유문화사, 1962.
신경림 ; 「한국전래동요집 I, Ⅲ」, 창작과 비평사, 1981.

濟州의 傳承童謠는 動物이나 植物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거나 채취하여 즐기는 動植物謠, 天體나 氣象의 변화에 驚異로움을 노래한 天體氣象謠, 유희를 동반하여 놀이의 진행과정이나 즐거움을 표현한 遊戲謠, 문답이나 꼬리따기, 對句맞추기 방법으로 말을 지어 가며 말놀이를 즐기는 語戲謠, 머리 깎은 애, 이빨 빠진 애 등을 놀리면서 부르는 諷笑謠, 빠진 이를 지붕 위로 던지거나 뱀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부르는 呪術謠, 아기를 채우거나 달래면서 노래하는 자장가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필자, 1985:9).

그가운데 濟州의 傳承遊戲謠만을 그 대상으로 삼으려 함은 傳承童謠 가운데에서도 그 비중이 크고, 지역단위의 조사연구가 우선 진척될 때 韓國의 傳承童謠研究의 진전이 이룩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곧 傳承童謠는 대개 유희와 동반되어 불리므로 遊戲謠가 主宗을 이루고 動植物이 주된 제재가 된다. 이는 자연 그 자체가 어린이들의 일상적 배경이고, 유희는 성인사회에서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에게는 일상생활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설과 유희기능의 측면을 중심으로 제재 및 내용, 유희의 종류, 전승실태 등을 살피고 지금에 와서 생겨난 遊戲謠와 비교하여 童謠의 變異樣相을 살피고자 한다.

한편 자료수집은 같은 지역내에서도 학부모와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通時的, 共時的으로 傳承變異를 고려하면서 수집했다.

논의대상은 傳承童謠 자료 161편 가운데 遊戲謠 101편(62.73%)이고 現行童謠 200편 중 거의가 집단유희요인 現行童謠 155편(77.5%), 도합 256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既存資料나³⁾ 韓本土의 童謠⁴⁾는 보조자료로

3)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上)」, 일조각, 1965.

진성기; 「남국의 민요」, 정음사, 1977.

제주대학; 「국문학보」, 제 7집(중문리조사), 1975.

_____ ; 「학술조사보고서」 제 5집(난산리조사), 1977.

_____ ; 「학술조사보고서」 제 6집(성읍리조사), 1978.

제주대학민속박물관; 「해존생활조사보고서」(용수리 및 오조리조사), 1978 등

4) 김소운; 「조선동요선」, (1933)

박두진; 「한국전래동요독본」, (1962)

임동권; 「한국민요집」, (1961)

_____ ; 「한국민요집 III」, (1975)

_____ ; 「한국민요집 V」, (1980)의 자료.

이용했다.

수집기간, 수집지역 및 각편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전승동요 자료수집 상황표

수 집 년 월	수 집 지 역	수 집 편 수	
		전 승 동 요	현 행 동 요
1982. 6	표선면 성읍리	21 (12)	22 (20)
1982. 6	한경면 고산리	15 (8)	15 (14)
1982. 8	대정읍 보성리	22 (13)	20 (18)
1982. 8	제주시 봉개동	21 (9)	22 (16)
1983. 6	안덕면 화순리	8 (4)	13 (10)
1983. 7	애월읍 금성리	17 (11)	20 (15)
1983. 7	한림읍 수원리	10 (8)	18 (12)
1983. 7	남원면 태흥리	13 (11)	18 (9)
1984. 4	제주시내 일원	16 (10)	19 (17)
1984. 6	애월읍 광명리	9 (9)	13 (11)
1984. 6	애월읍 애월리	9 (6)	20 (13)
계		161(101)	200(155)

※ ()는 遊戲機能이 뚜렷한 遊戲謠만을 추출한 수이다.

말놀이하면서 부르는 語戲謠, 다른 상대를 조롱하며 부르는 諷笑謠 역시 遊戲謠에 포함시켜 논의되어질 수 있으나 놀이 형태가 없고 유희기능이 뚜렷하지 않으며 놀이 도구도 필요로 하지 않아 제외시켰다.

童謠研究는 가락, 사실, 기능 등 口碑文學 구성요소의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實相이 밝혀질 것이겠지만, 반드시 가락의 형태를 뚜렷이 띠지 않은 것도 있어서 가락채보가 힘들다. 따라서 本考는 사실의 내용과 戲謠機能의 측면을 중심으로 遊戲謠의 특성을 논의하여, 童謠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 濟州傳承遊戲謠의 分類

遊戲謠는 노래의 박자를 맞추어 놀이를 진행시키거나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른다(장덕순의 3인, 1980:86).

곤충을 잡거나 가지고 놀면서, 또는 집단이 모여서 행해지는 ‘호박놀이’ ‘외하르방놀이’ 등의 遊戲謠는 놀이를 진행시키려는 목적하에서 불리며 사실내용이 비교적 固定的이다. 그러나 식물을 가지고 놀 때는 놀이의 내용을 말하면서 어린이의 情緒가 즉흥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

근래에 와서 생겨나 天體氣象을 노래하거나 어린이 本然의 純粹에 바탕한 傳承童謠와는 다른 양상으로 飄刺性을 띤 새로운 노래가 ‘고무줄놀이’ ‘기차놀이’ ‘그림그리기’ ‘줄넘기’ 등의 집단적 유희와 함께 불려지고 있다. 이러한 노래들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른 어린이의 對社會意識이 반영된다.

遊戲謠는 우선 발생시기에 따라 分類되고 유희의 종류, 기능, 놀이도구의 유·무, 구성인원수, 적극성 여부, 장소, 성별, 계절, 전승 여부 등을 기초로 하여 분류가 가능하다.

발생시기에 따라 과거에 생겨나 불려지고 전승되는 傳承遊戲謠와 현재 어

〈표 2〉 濟州地域遊戲謠에 드러난 傳承놀이 실태

種 類	機 緣	性 別	場 所	傳 承 與 否	季 節
a. 동물을 가지고 놀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동벌레를 가지고 놀면서 • 풍뎅이를 가지고 놀면서 • 방아깨비를 가지고 놀면서 등 	남·여 “ “	실외 실내·외 “	○ ○ ○	여름 “ “
b. 동물을 잡으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자리, 매미 잡으며 • 도롱이 나오게 하며 • 달팽이 집속에 나오게 하며 등 	“ “ “	실외 “ 실내·외	○ ○ ○	“ “ “
c. 식물을 가지고 놀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리피리 만들면서 • 쇠비름뿌리 두드리며 • 풀각시 만들면서 • 실거리 나뭇잎따기 등 	“ “ 여 “	“ 실외 실내·외 “	○ ○ × ○	“ 봄~가을 “ “
d. 순수집단 놀이하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박놀이 • 밤놀이 • 외하르방놀이 • 원님놀이 • 숨바꼭질 • 소꿉놀이 등 	남·여 “ “ “ “ “	“ 실외 “ 실내·외 “ “	× × × ○ ○ ○	사철 “ “ “ “ “

린어들 사이에 불려지는 現行遊戲謠로 우선 분류된다. 그래서 濟州地域의 傳承童謠에 나타나는 遊戲謠와 現行童謠에 나타나는 遊戲謠로 나누어 그 전승놀이 실태를 파악하고 유희의 종류를 살피기로 한다.

濟州地域의 遊戲謠에 드러난 전승놀이의 실태를 보면 위의 <표 2>와 같다.

앞의 <표 2>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과거의 어린이들은 자연물을 가지고서 놀이를 즐겼고, 男女의 性區別이 분명하지 않다. 자연물을 바라보거나 채취하는 과정이 불필요한 것은 장소에 구애됨이 없고, 動物을 가지고 노는 놀이는 여름에, 植物을 가지고 노는 놀이는 봄에서 가을까지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집단놀이는 사철 행해지며 풀각시를 만든다거나, ‘호박놀이’ ‘외하르방놀이’ ‘밤놀이’ 등 순수집단놀이만이 사라지고 거의 아직도 농촌 어린이들에게 전승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積極性 여부에 따라 (a), (b), (c)는 혼자서도 가능한 개인놀이여서 소극적이고, 자연물과의 대화 또는 개인의 소박한 소망이 드러난다. 반면 (d)는 적극성을 명 집단놀이로 놀이 그 자체의 진행을 위해서 불리어진다. 집단놀이는 社會的 關心이 확대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역할이 고정되고, 社會的 地位를 부여받아 自己中心的 行動에서 벗어나 사회를 익히는 데 적절한 놀이다. 또한 사회적 경험을 맛보고 집단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데 적당한 놀이이기도 하다.

遊戲謠는 음과 韻의 反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歌唱과 기억이 용이하도록 韻을 많이 사용하는 人間의 原初的 生理의 表出이며 唱者는 기억된 것을 再口演하는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Ruth Finnegan, 1977:52).

現行遊戲謠 역시 규칙적인 동작이 함께 수반되므로 반복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놀이형태로 볼 때 ‘고무줄놀이’ ‘소꿉놀이’ ‘모래주머니놀이’ 등은 놀이 기구가 필요한 遊戲謠이나 손바닥을 치거나 줄을 지어서 노는 ‘행렬놀이’, ‘그림그리기’ 등은 놀이 도구가 필요치 않다.

現行遊戲謠의 놀이 실태를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a), (b), (c), (d)는 규칙이 있고,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 게임(game)

〈표 3〉 現行 遊戲謠에 나타난 놀이실태

種 類	機 緣	性 別	場 所	季 節
a. 고무줄놀이	• 순이아버지 • 아버지는 나귀타고 • 우리는 대한의 아들 딸 등	여	실내·외	사철
b. 줄넘기	• 혼자넘기 • 여럿이 넘기 등	여	실외	사철
c. 행렬놀이	• 기차놀이 • 꽃따러가게 등	남·여	실외	사철
d. 모래주머니놀이	• 아버지 나도 중학에 등	여	실내·외	사철
e. 손바닥치기	• 아침바람 찬바람에 • 썩썩 놀이 등	여	실내	사철
f. 그림그리기	• 얼굴그리기 • 사람그리기 등	남·여	실내·외	사철
g. 소꿉놀이	• 가족놀이 • 학교놀이 등	남·여	실내·외	사철

의 형식이며 (e), (f), (g)는 일반적으로 규칙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유취적 성격을 띠며 플레이(play)의 형식에 속한다. 自然物을 題材化하지 않으며 장소나 계절에 크게 구애됨이 없고 도시나 농촌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리고 차차 性區別이 뚜렷해지며 대개 개인놀이가 아니라 集團의이며 協同놀이이다. 그것은 어린이의 社會的 行動이 個人놀이에서 併行놀이, 連合놀이, 또는 協同놀이로 연령에 따라 차차 변모해 감을 보여주고 있다(M.B., Parten, 1932:27).

그래서 濟州地域에 전해지는 遊戲謠는 개인이 놀이를 즐기면서 부르는 個人遊戲謠와 집단이 놀이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集團遊戲謠, 지금에 와서 생겨나 불려지는 現行遊戲謠로 分類된다.

Ⅲ. 濟州傳承遊戲謠의 內容

동요는 어린이들 생활 전반에 걸친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며 자연환경 및 사회의 제반양상과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창출되므로 地域의인 特性이 깔린다.

제주도는 自然環境, 歷史, 文化가 韓本土와는 다르다. 環海天險의 島嶼로서 本土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隔絶性, 토지가 狹隘하다는 점, 豪雨, 旱災 등 자연적으로 불리한 환경과 中央政府 및 地方官吏의 수탈과 貢賦, 몽고와 왜구의 침략 등 역사적으로도 악조건 속에서 살아왔다.

위와 같은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은 이상적이고 낭만적(이재철, 1983:14)이라기보다는 現實主義의인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지역의 歷史性을 題材化하기도 한다. 또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로 아직도 原始的의 性格을 띤 내용과 形式을 보존한 노래도 있다.

個人遊戲謠와 集團遊戲謠의 사실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現行遊戲謠는 傳承遊戲謠와 상당히 다른 내용의 變異現狀을 볼 수 있으므로 傳承遊戲謠의 變異에서 다루고자 한다.

1. 個人遊戲謠

어린이들은 곤충을 잡거나 가지고 놀면서, 또는 쇠비름을 두드리거나 각시풀로 각시(풀새각시)를 만들면서 노래한다. 이와같은 노래는 혼자서도 가능한 개인놀이와 함께 불려지는데, 대개 놀이의 類型을 말하면서 개인의 情緒가 표출되고 있다.

歌唱機緣에 따라 몇 편을 살펴 볼까 한다.

(1) 개똥벌레 잡으면서

- ① 갇어벌기* 똥똥
우리집에 붙었다.
날아와서 밝혀라.

*개똥벌레

(필자채록, 안덕국교, 83.6, 김순지, 남·13)

(2) 잠자리 잠으면서

② 곤밥주리 청청

앉아난 방석에 앉이라

(필자채록, 애월읍 금성리, 83.10, 홍덕삼, 여·61)

<語釋>

고추잠자리 청청

앉았던 방석에 앉아라.

③ 물자라 물자라(呼稱)

앉아라 앉아라(命令)

안앉으면 너네집이(假定)

불개와 부키여(意志)

(필자채록, 표선면 성읍리, 82.6 김진두, 남·12)

<語釋>

잠자리야 잠자리야

앉아라 앉아라

앉지 않으면 너희 집에

불태워 버린다

(3) 소꿉놀이하면서

④ 너몸은 사락사락

우리애기몸은 맨질맨질

(필자채록, 제주시연동, 1984.4 이금숙, 여·73)

<語釋>

네몸은 꺼끌꺼끌

우리 아기 몸은 매끈 끈

위 동요들은 노래를 하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변화가 오리라 하는 확신이 담겨 있는 노래로 어린이들의 呪術的 歌謠觀이 內包되어 있다. 이는 어린이들의 思考가 성인보다 훨씬 더 自然界에 대한 畏敬心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個人遊戲謠는 단순하고 원시적 형태의 呪術性을 띤 노래들을 부르며 目的性을 지니거나 機能性을 띠기도 한다.

①②는 곤충을 잡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다. 이와 비슷한 사실이 다른 動物을 잡을 때도 固定되어 도내일원에 전승되고 있다. ‘뚱뚱’ ‘청청’은 動物을 유혹하기 위한 일종의 戲音이며 生動感을 주고 韻律的 효과를 가져다 준다.

③의 노래는 呼稱—命令—假定—意志의 四段構成을 취하며 ‘迎神君歌’와 類型이 비슷하다.

- ⑤ 龜何龜何(呼稱)
首其現也(命令)
若不現也(假定)
燐灼而契也(意志)

두 노래를 비교하면 同一한 유형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이런 일을 해라” 하는 積極的 呪術 형태를 취하며 呪力을 가진 노래라 볼 수 있다. 동원된 어휘가 命令的이며 강제성을 띤다. 洪城地方에서는 눈에 티가 들었을 때 이와 비슷한 類型의 노래를 부른다.

- ⑥ 까치야 까치야
내 눈에 티내라
안내주면 내새끼
발기발기 찢겠다.

까치를 불러서 눈에 든 티가 사라지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④는 소꿉놀이하면서, 피부병이 난 환자를 부뚜막 위에 앉히고 ‘실거리’ 나무를 꺾어다 환부를 쓸어내리며 부르는데 노래를 함으로써 피부병은 날카로운 가시에 轉移되고 몸은 깨끗해질 것이라 여긴다. 動作들은 呪術의 行爲로서 祭禮의 축소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儀式을 행함으로 인해 효험을 가져오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呪言 즉 사실은 비록 가락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對象 또는 神, 人間과 感通할 수 있는 靈的인 媒介體로 연상적인 힘(associative power)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같은 呪術性을 띤 동요는 원시종교적인 기능을 가지고 향유되던 민요

가 認知의 발달로 거의 소멸되었으며, 現傳 童謠에 그 殘影이 남아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좌영조, 1965:53)

濟州의 童謠에는 위와 같은 遊戲謠 외에도 비를 그치게 하거나, 뱀을 사라지게 하는 등, 呪術性을 띤 노래가 많은 편이다. 원시민요일수록 呪術性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비록 미개성을 면했다 할지라도 原始宗教의 畏敬感이 가시지 않은 한 呪術力은 유지될 것이다.

다음 ⑦⑧의 노래는 有償의인 행위를 요구하는 발상이 現實主義的이며 반드시 보상에 주는 것이 아닌 일종의 感言일지라도 實利性을 띤 노래임이 확실하다.

(4) 매뚜기를 춤추게 하머

⑦ 만축아 만축아 춤을춰라

너네어멍 너네아밤

정의대정 굿하느니 데려다주마

만축아 춤을춰라

(필자채록, 한경면 고산리 1982.6, 홍대순, 여·37)

〈語釋〉

매뚜기야 매뚜기야 춤춰라

너희엄마 너희아빠

정의대정 굿하는곳에 데려다출게

매뚜기야 매뚜기야 춤춰라.

(5) 매미를 잡으면서

⑧ 주월재열 너려오라

개똥범벅 하영주마

새똥범벅 하영주마

복복 굿어먹영

작작 올라가라

(필자채록, 안덕면 화순리, 1983.6, 김태선, 남·42)

〈語釋〉

등에 매미 내려오라

개똥범벅 하여 주마

쇠뚝범벅 하여 주마
박박 굶어먹어서
죽죽 올라가거라.

⑦은 매뚜기 뒷다리를 잡고서 노래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무당이 춤추는 것을 연상하였다.

⑧에서는 補償物로 ‘쇠뚝범벅’ ‘개뚝범벅’이 등장하고 ‘복복’은 음식을 남김없이 먹는 모양, ‘꼭꼭’은 잡지 못하게 빠른 동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擬態語로 이 어휘들은 서민적이다.

이러한 現實主義的 경향은 민요에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지만(김영돈, 1978:488~489) 동요에도 나타난다. 이는 어린이들의 꿈과 낭만의 세계가 現實化되어 나타나는 경험의 所産이다. 이는 과거의 가난한 생활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生活觀은 勤勉性과도 연결된다. 動物을 가지고 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는 島民의 근면한 모습을 차용한 노래가 있다.

(6) 풍뎡이가 돌길 바라면서

⑨ 대정할망 마레코라
대정할망 마레코라

(제대학술조사보고서 8. 애월읍 광지리, 82.8, 고내숙, 여·66)

<語釋>

대정할머니 땃돌 갈아요
대정할머니 땃돌 갈아요.

(7) 방아깨비 뒷다리 잡고서

⑩ 방애저라 방애저라

심방만축 방애저라

(필자채록, 애월읍 애월리, 1984.6, 강선희, 여·28)

<語釋>

방아 찼어라 방아 찼어라
방아깨비 방아 찼어라

(8) 도롱이를 땅 밖으로 나오게 하며

- ⑪ 도롱아 도롱아
지게지영 나오라
앞밭의 새들영
보리 다먹엄저

(필자채록, 애월읍 금성리, 1983.7, 김인숙, 여·41)

〈語釋〉

도롱아 도롱아
지게 메고 나오너라
앞밭에 소가 들어
보리 다 먹는다.

(9) 보리피리를 만들면서

- ⑫ 주네 다까도라
사발 다까도라
앞밭의 쟁기걸라
뒷밭의 멍에걸라.
암퇘 마룩
네미 ×뻬쪽

(남국의 민요, 376, 한경면 고산리 1956.10, 고명옥, 여·81)

〈語釋〉

보리피리 닭아달라
그릇 닭아달라
앞밭에 쟁기 걸치라
뒷밭에 멍에 걸치라
암탉 *마룩
너희어미 ×뻬쪽

*닭우는 소리

풍뎡이나 방아깨비, 도롱이를 가지고 놀면서, 또는 보릿대로 보리피리를 만들면서 부르는 노래에서 島民의 勤勉性을 상징하는 ‘마룩’ ‘방에’ ‘지게’ ‘쟁기’ ‘멍에’ 등의 소재가 등장하고 있다. 풍뎡이의 몸체를 망 위에 뒤엎었을 때 돌아가는 모습을 뗏돌이 돌아가는 것으로, 또 방아깨비가 주벅거리는 것을 방아 켤는 것으로, 땅 속을 기어나오는 모습을 지게 지고 느리게 나온다는 것으로 착상하고 있다. 보리피리를 만들면서는 농부가 밭을 갈 때

부르는 휘파람소리를 조화시켜 보리피리의 신나는 소리를 연상하고 있다.

다음 풀각시를 만들면서 부르는 노래나 쇠비름 뿌리를 두드리면서 부르는 노래에는 地域의 歷史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는 개인의 소박한 情緒가 표출되기도 한다.

(10) 풀각시를 만들면서

- ⑬ 서방머린 터박터박
나머린 문질문질
질곱악하게 출리난
시집보내사켜

(국문학보 7. 증문, 양희옥, 여·17)

〈語釋〉

서방 머리는 터벅터벅
내 머리는 맨질맨질
가장 예쁘게 차리니
시집 보내야겠다.

- ⑭ 총각차라 물에들게
썰싸라 비양도가게
추자와탈 미역조물레가게

(필자채록, 애월읍 금성리, 84.5, 홍덕삼, 여·67)

〈語釋〉

총각머리 묶어라 물에 들자
쌈 꾸러라 비양도 가자
추자 과탈 미역 캐러 가자

(11) 쇠비름 뿌리를 두드리며

- ⑮ 동더레 불나라
서러레 불나라

(필자채록, 애월읍 애월리 84.6. 장석돈, 여·62)

〈語釋〉

동쪽으로 불 일어라
서쪽으로 불 일어라

- ⑯ 불싸라 불싸라

던덕케기 피어나라
 평케기 피어나라
 돛케기 피어나라

(제대국문학보 7. 애월읍 남율리, 1978. 7, 강정임, 여·60)

〈語釋〉

불켜라 불켜라
 언덕배기 피어나라
 평고기 피어나라
 돼지고기 피어나라.

- ①⑦ 신랑님이 오신다
 색시님도 오신다
 신랑방에 불켜고
 색시방에 불켜라

(原州地方, 임동권, 1961:1479)

⑬⑭의 노래는 인형이 없던 시절, 마늘과 같이 잔 뿌리가 길게 달린 풀로 인형을 만들어 옷을 입히고 ‘각시’ 역할을 하게 하는 놀이로서 ‘소꿉놀이’와 함께 행해진다.

⑬은 女兒의 고운 心情이 드러나는가 하면 ⑭는 海女作業과 出稼를 題材로 하고 있다. 동요라기보다는 민요적 성격을 띤 노래로 성인의 日常을 ‘소꿉놀이’에 적용시키면서 부르고 있다. 각편에는 어린이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낱말이나 성인이 사용하는 어휘들도 눈에 띈다. 이는 어린이와 성인의 共同作이거나 성인이 부르는 것을 따라 불렀을 가능성이 많고 日常生, 可視的, 具象的인 것을 題材로 해서 緊張體系를 이룩하여 傳承力을 끈질기게 한다(김영돈, 1981:39).

⑮⑯⑰은 쇠비름이나 색시풀을 가지고 돌이나 손바닥에 두들겨 마찰시키면서 뿌리가 붙어지는 모습을 신기하게 여겨 불이 켜지는 것으로 착상하였다. 原州地方에서는 신랑방과 색시방에 불켜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반면, 濟州에서는 倭寇의 침입을 막기 위한 烽燧臺에 불이 켜졌던 歷史的 사실을 반영한다.

위에서 個人遊戲謠에 나타나는 사실내용을 살펴 보았다. 개인놀이는 활동

의 폭이 좁고 놀이가 소극적이므로 개인의 情緒를 토로하기에 적당한 놀이 형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꿈다란 꿈과 소망이 표현되기도 하고 현실을 의식한 現實性이 강한 노래와 島民의 근면을 상징하는 素材의 借用, 歷史的 사실의 반영, 또는 원시적 사고가 내포된 呪術性 등이 주된 내용이다.

2. 集團遊戲謠

集團遊戲謠는 ‘호박놀이’ ‘밤놀이’ ‘원님놀이’ ‘외하르방놀이’ 등의 집단적인 놀이를 하면서 부른다. 이 놀이는 각 개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일상생활을 놀이를 통해 再現하면서 사회를 익히고 秩序와 規則을 배운다.

이러한 집단놀이와 동반되는 노래의 사설은 놀이 진행상 필요한 말들로 구성되며 對社會觀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각편(Version)의 사설을 놀이별로 살펴 내용을 추출하고자 한다.

(12) 원님놀이하면서

⑬ 호다리 인다리

개청 대청
원님 사월
구월 나월
상전밋떡 지퍼보니
얼통덜통 주둥이척

(필자 채록, 애월읍 애월리, 1984. 6, 장석돈, 여 · 67)

⑭ 호다리 인다리

거청 개
지녀 유문
보문 개
오오 장장
꼬노꼬노 도라
돌감밋떡 새평

(필자 채록, 중문리, 1983. 6, 문진자, 여 · 47)

‘원님놀이’는 놀이를 진행하기 이전에 불리며, 각 개인이 역할을 정하기

위해서 마루 위에 다리를 뻗고 노래하다가 ‘주둥이척’과 ‘새뺨’에 해당하는 자가 발 한쪽씩을 움츠린다. 두발 모두가 먼저 움츠리는 사람 순서대로 ‘원님’ ‘식모’ ‘개’ ‘닭’ ‘도둑’의 역할을 정한다. 역할이 정해지면 모두가 잠을 자는 시늉을 하고 ‘도둑’이 몰래 숨는다. 그후 닭이 ‘꼬끼오’하고 날이 밝아움을 알리면 식모가 밥을 지으려고 깨어난다. 쌀독을 열어본 후 “쌀이 없어졌다” 소리치면 모두 깨어나서 손에는 대나무에 형검을 매달아 旗를 만 들어 들고 원님의 행차를 모방하여 도둑을 잡으러 나간다.

사설에서는 음란한 ‘상전’ 즉 원님의 거동을 諷刺한 것으로 ‘다리’ ‘주둥이’ 등 煽情的인 날말을 동원하여 익살스럽고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唱者は 성인임에 틀림이 없고 놀이를 통하여 어린이에게 부르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불만을 歪曲의으로 표현하여 ‘상전’에 대해 轉倒시키는 방식으로 官僚主義의 產物인 권위를 조롱하고 비꼬와, 자신의 분노를 없애려는 인간의 심리적인 適應機制의 하나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Arthur Pollard, 1979:29). 唱者は 등장인물을 상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노래하거나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효과를 즐길 수 있다. ‘원님놀이’의 주된 제제는 도둑잡기이며 ‘외하르방놀이’에서도 ‘도둑잡기’가 題材가 된다.

(13) 외하르방놀이하면서

㉔ 하르방 하르방

문물아 줌서

도둑놈 왔저

도둑놈 왔나

하르방 문물아 줌서

도둑놈 왔나

문물아 주저

(국문학보 7. 중문 김씨)

〈語釋〉

할아버지 할아버지

문열어 주서요

도둑놈 왔어요

도둑놈 왔다

할아버지 문 열어 주세요
 도둑놈 왔나
 문열어 줄께

이 노래가 끝나 할아버지가 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수박 따먹는 시늉을 한다. 그러면 ‘외하르방’이 화를 내며 “에이 이놈들 도둑놈들”하고 내쫓는다. 할아버지가 쫓아가서 잡으면 이가 다시 술래가 되어 놀이는 계속된다.

다음 노래는 행렬놀이와 동반된다. 놀이는 왕으로부터 술래까지 열을 지어서 앉는다. 모여 앉은 사람 전부가 ㉠을 부르고 술래가 왕까지 오면 왕이 ㉡를 노래한다. ㉢는 술래가 노래하는데 놀이의 진행과정이 사실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14) 물건찾기놀이하면서

- ㉠ ㉡ 하늘만이 튀어오소 경충
 콩방울만이 튀어오소 경충
 꽃방울만이 튀어오소 경충
 녹뎡방울만이 튀어오소 경충
 좁쌀방울만이 튀어오소 경충
 ㉢ 어찌하연 왔소
 ㉣ 당오름서 밧갈단
 담뱃불 부치레 왔소
 ㉤ 죽은 솟강알에 강보소
 ㉥ 깃소
 ㉦ 화리에 강보소
 ㉧ 깃소
 ㉨ 굴묵에 강보소
 ㉩ 깃소
 ㉪ 새당남은걸랑 ㄹ정가소
 ㉫ 하나 둘 셋

(필자채록, 애월읍 금성리, 83.7 흥덕삼, 여·67)

<語釋>

- ㉠ 하늘만큼 뛰어 와요 경충

콩알만큼 뛰어 와요 경충
 팥알만큼 뛰어 와요 경충
 녹두알만큼 뛰어 와요 경충
 좁쌀알만큼 뛰어 와요 경충

⑧' 어찌해서 왔어요

⑨' 당오름서 발 갈다가
 담뱃불 붙이러 왔어요

⑩' 작은 술밑에 가 보오

⑪' 겠소

⑫' 화로에 가 보오

⑬' 겠소

⑭' 아궁이에 가 보오

⑮' 겠소

⑯' 명아리다 남은 것은 가져 가요

⑰' 하나 둘 셋 (가위 바위 보)

이 노래에는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에서의 秩序意識이 표출되고 있다. 계층의 향상은 순서가 있고 그 단계를 거쳐야만 함을 터득케 한다. 量의 크기를 나타내는 ‘만’이 韻을 이루며 ‘하늘’ ‘콩’ ‘팥’ ‘녹두’ ‘좁쌀’ 등이 크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뛰는 동작과 잘 對比가 되고 있다. “어찌하연 왔소”의 질문에 “담뱃불 부치레 왔소”의 대답은 꽤 諧謔적이다.

이와 비슷한 놀이로 ‘호박놀이’가 있다. 唱者(涯月邑, 郭支里, 金仁郎, 여·92)에게 동요를 口演하도록 청하자 “일본놈이 쳐들어 오려하니 동네 아이들이 여기저기 모여들면서 ⑳의 노래를 불렀다. 또 日本이 패망하여 물러가려고 하자 ‘넬모리 동동 넬모리 동동’ 하면서 ‘호박놀이’를 했다”고 나름대로 譏諷의 성격을 띠려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口演했다.

㉔ 일본놈이 능금의집이

뿔하레 갔나

새끼치레 갔다

뱃머리 쳤나

두머리 쳤다

보까먹고 다까먹고

〈語釋〉

일본놀이 능금의 집에
 뭐하러 갔나
 새끼치러 갔다.
 몇마리 쳤나
 두마리 쳤다
 볍아먹고 뚝아먹고

(15) 호박놀이하면서

㉔ 술래 : 호박사래 왔수다

④ : 널모리동동 흥영읍서

전원 : 널모리동동 널모리동동

술래 : 호박사래 왔수다

⑤ : 동매엿수다 널모리동동 흥영읍서

전원 : 널모리동동 널모리동동

술래 : 호박사래 왔수다

⑥ : 설엇수다 널모리동동 흥영읍서

전원 : 널모리동동 널모리동동

술래 : 호박사래 왔수다

⑦ : 익엇수다 (가위 바위 보)

〈語釋〉

술래 : 호박사래 왔어요

④ : 내일모레 동동 해서와요

전원 : 내일모레 동동 내일모레 동동

술래 : 호박사래 왔어요

⑤ : 호박이 달렸다

내일모레 동동 해서와요

전원 : 내일모레 동동 내일모레 동동

술래 : 호박사래 왔어요

⑥ : 설었다

내일모레 동동 해서와요

전원 : 내일모레 동동 내일모레 동동

술래 : 호박사래 왔어요

㉑ : 익었어요 (가위 바위 보)

㉒는 日本의 植民地政治를 풍자하고 있다. 植民地化를 ‘새끼쳤다’, 식민지 통치의 수탈과 억압의 상황을 “보까먹고 다까먹고”라고 표현하면 ‘두마리’란 朝鮮과 淸國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㉓은 호박의 성장과정을 열거하여 하나의 놀이형태를 만들었다. 역할을 정한 후 술래는 가장 나중 사람 ㉔에게 가서 “호박 사러 왔다”고 하면 “내일 모레 있다가 다시 들르라”고 한다. 술래가 제 자리를 돈 후 다시 ㉕에게 찾아간다. 이런 과정이 반복된 후 왕에게까지 올라가 가위 바위 보로 대결한다. 술래가 이기면 왕이 되고 왕은 술래가 되어 역할이 바뀐다. ‘널모리 동동’은 어떤 일의 결말이 멀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이며 어린이들 간에 사용되는 慣用句이다.

여럿을 필요로 하는 집단놀이는 사회적 경험을 맛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協同心을 기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集團遊戲謠의 사실은 계층간의 認識에서 上位階層 및 時代諷刺, 또는 차례, 순서를 중시하는 秩序意識과 社會存續을 위한 각개인의 역할행위가 주된 내용이 되고 있고 題材는 도둑잡기, 물건찾기 등이다.

IV. 濟州傳承遊戲謠의 變異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나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 그 노래는 여러 곳으로 전파되며, 과거의 노래들이 不易性을 지니고서 지금까지 불려진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三國時代의 薯童謠나 高麗・朝鮮時代의 識謠의인 노래를 비롯하여 現代의 아동들까지 동요를 創作하고 口傳시켜 왔다. 口傳되는 과정에서 노래는 變異過程을 겪게 되어 사실이나 가락이 변하거나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變異研究는 共時的・通時的 고찰이 병행돼야 한다. 그런데 아직 동요 각편의 개별적인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변이현상의 구명은 어려우므로 차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지금까

한 불러오는 傳承童謠의 내용과는 색다른 노래 즉 요마적에 창작되어 ‘고무 줄놀이’ ‘줄넘기’ ‘그림그리기’ 등의 놀이와 함께 불러지는 現行童謠의 내용을 살펴, 傳承遊戲謠의 通時的인 變異樣相을 고찰하고자 한다.

現行遊戲謠는 학교에서 배운 동요곡이나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해 익히 배운 歌曲에다 자신들이 직접 가사를 붙여 성인사회, 학교, 가정의 세 영역을 대상으로, 풍자하는 내용으로 오늘날 어린이의 意識世界와 社會觀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16) 기차놀이하면서

- ㉔ 칠폭푹 나도붙여줘
싫어
우리엄마한테 이틀데야
니네엄마가 뭔데
다리밑에 떡장수
아이 땀
칠폭푹 나도붙여줘
싫어
우리아빠한테 이틀데야
니네아빠가 뭔데
이나라의 대통령
와~

(필자채록, 애월읍 광금국교, 83.7, 이혜숙, 여·13)

(17) 열굴그리기하면서

- ㉕ 비가짜짜 내리네—㉔
산수시험 봤더니
점수 100점 어머닌 60점—㉕
아버지 0점—㉔

(필자채록, 제주서교, 84.4, 김경숙, 여·13)

(18) 역할을 정하기 위해서

- ㉖ 혼다리 인다리 거청개
이모네집 갔더니
암탉수탉 잡아서

나한술 안주고
우리집에 와봐라
국물한적 안준다.

(필자채록, 대정읍 보성국교, 84.12, 송미심, 여·12)

(19) 고무줄놀이하면서

㉔ 학교종이 돈돈돈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봉투를 기다리신다.

학교종이 없어졌다
찾으러 가자
선생님이 교문에서 엿사먹는다.

(필자채록, 제주서교 84.4, 이민자, 여·13)

㉔는 행렬놀이의 일종인 ‘기차놀이’를 할 때 불린다. 사실이 단순하고 곡도 간단한 편이다. 對句를 형성하여 ‘떡장수’와 ‘새통령’이 對照가 되고 있으며 ‘엄마’가 ‘아빠’로 바뀔에 따라 계층간의 수직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 아동유희에 나타나는 階層意識은 앞서 살핀 集團遊戲謠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여기에 와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㉔는 ‘얼굴그리기’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데 ㉔는 머리털, ㉔는 눈과 코와 입, ㉔는 얼굴을 그리면서 부른다. 유희를 즐기면서, 성적이 향상되기를 강요하는 부모를 힐난하였다.

㉔는 ‘원님놀이’ 할 때 부르던 노래가 지금에 와서 變異된 모습이다. 역시 역할을 정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훈다리 인다리 거창개’라는 마루에 앉아서 다리 뻗은 상태를 나타내는 귀절만이 남고 사실내용이 전부 바뀌었다. 친척집에 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差等待遇의 非情함을 諷刺的으로 묘사했다.

㉔는 선생님에 대한 금전만능의 사고와 감정이, 종소리가 ‘돈돈돈’으로 율림으로써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 생긴 現行遊戲謠에서는 사회 계층간의 격차나 화목하지 못한 가정, 학교성적, 社會非理의 폭로가 주된 내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꿈과 깊은 애정을 노래한 것도 가끔 보인다.

(20) 고무출놀이하면서

- ㉔ 만약내가 꿈이었다면
무엇이될까 생각해봐요
나는 선생님이될테야

(21) 모래주머니놀이하면서

- ㉔ 어머님 은혜는 어찌하나요
예쁜화장 바르면 고와지나요
안돼안돼 그래선 안돼요
엄마고생 하시면 울고싶어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과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주름이 느는 것을 안타까와하는 심정이 잘 드러난다.

그외에 反共教育의 영향으로 金日成을 배척하는 내용의 노래와 統一을 염원하는 내용도 보인다.

(22) 출넘기하면서

- ㉔ 일성이란 놈이
이세상에 태어나
삼팔선을 만들어
사람을 죽여서
오늘에 와서는
육이오를 일으켜
칠만 군을 이끌어
팔도강산 넘는다
구두발에 얻어맞아
심분만에 케이오됐네

(필자채록, 한림읍 수원국교, 83.7 김인미, 여·13)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大自然을 題材로 한 傳承遊戱謠와는 달리 飄笑的인 내용으로 집단놀이와 함께 전승·전파되고 있다. 동원되는 어휘 역시 變化되었다. 이러한 言語 속에 보이는 변화야말로 社會的, 知的, 여러 環境의 압력에 기인하는 것이다(Rene Welleck and Austin Warren, 1966:174).

③에서 ‘일성’ ‘삼팔선’ ‘육이오’ ‘케이오’ 등의 어휘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言語環境이 다른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이는 동요가 수동적으로 언어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V. 맺 음 말

이상에서 濟州地域에 전승되는 遊戲謠를 수집하고 遊戲機能 위주로 分類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사실내용을 분석해 보았는데, 이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삼을까 한다.

첫째, 濟州傳承遊戲謠는 發生時期, 遊戲機能, 構成人員數, 歌唱機緣 등을 참고하여 분류할 수 있는 데 動物을 잡거나 動植物을 채취하여 즐기는 등, 혼자서도 가능한 놀이와 동반되는 個人遊戲謠와 집단으로 어울려서 ‘원님놀이’ ‘호박놀이’ ‘외하르방놀이’ 등의 놀이와 함께 놀이 진행과정에서 부르는 集團遊戲謠로 분류된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겨나, 이미 잘 알고 있는 脞曲에다 가사를 붙여 ‘고무줄놀이’ ‘줄넘기’ ‘그림그리기’ 등의 놀이와 함께 불리는 現行遊戲謠는 위의 傳承童謠와는 성격이 다르다.

둘째, 개인놀이는 動作이 작고 靜的이며 소극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情緒를 표출하기에 적당한 놀이이며, 집단놀이는 動的이며 적극적이므로 개인이 집단에 참여하여 놀이를 진행하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놀이다.

셋째, 個人遊戲謠는 개인의 꿈과 소망 등 개인의 情緒가 표출되며 현실을 의식한 現實性이 강한 노래와 島民의 勤勉을 상징하는 素材의 借用, 역사적 사실의 반영, 또는 원시적 사고가 내포된 呪術性이 강한 노래 등이다.

네째, 集團遊戲謠에는 對社會意識이 드러나며 계층을 의식한 사실이 나타난다. 각개인의 역할을 통해서 사회를 반영하며 질서, 순서에 의한 自我實現이 놀이형태에 나타나고 놀이 규칙을 통해 사회를 익히고 배우는 과정이 나타난다.

다섯째, 現行遊戲謠는 傳承遊戲謠와 판이한 내용이 나타나, 遊戲謠의 社會變遷에 따른 通時的인 變異樣相을 살필 수 있다. 社會階層間的 격차나 和

睦하지 못한 家庭, 學校成績, 社會非理의 폭로가 주된 내용이다. 또 傳承遊戱謠와는 다른 어휘가 동원되고 있어 언어의 變異現狀도 나타나는데 이는 社會的 產物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口碑文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口傳되는 자료가 世態의 변화와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제주지역의 遊戱謠를 수집하고 연구하였으나 사설이 단조롭고 내용이 다채롭지 못하여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口演狀況이 과거의 어린이와 달라 입체분석이 정확지 못한 편이다.

가락채보를 통한 음악적 분석과 遊戱機能 및 動作과의 상관성 연구, 遊戱謠의 變遷史, 어린이 특유의 修辭나 文體연구, 他地方과의 비교연구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김소운

1933, 「조선동요선」, 岩波書店.

김영돈

1965, 「제주도민요연구(上)」, 서울: 일조각.

1978,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생활관」, 지우변시민박사회갑기념논문집, 동간행위원회.

1980, 「한국전승동요에 드러난 청소년의 의식」, 제주대학논문집 제12집, 인문대학편.

1981, 「동요」, 한국민속대관 제 6권 구비문학편, 서울: 고대민속문화연구소.

김동욱

1961, 「한국가요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김정률

1982, 「아동발달과 교육」, 서울: 학문사.

고경옥

1949, 「조선민요연구」, 서울: 수선사.

이재철

1983, 「아동문학의 이론」, 서울: 형설출판사.

유안진

1981, 「한국고유의 아동놀이」, 서울: 정민사.

임 동권

1961, 「한국민요집」, 서울: 동국문화사.

1976, 「한국민요집 III」, 서울: 집문당.

1980, 「한국민요집 V」, 서울: 집문당.

1964, 「한국민요사」, 서울: 문창사.

장덕순의 3인.

1980, 「구비문학개설」, 서울: 일조각.

곽영조

1965, “한국민요연구; 제주도 민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조동일

1984,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 서울: 한길사.

1974. 9. 19 “민요: 동요”, 서울평론 45호, 서울신문사.

진성기

1968, 「남국의 민요」, 제대민속문화연구소.

필자

1985, “제주전승동요의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Arthur Pollard, 송낙헌 역.

1982. Satire 문학비평총서 8, 서울대학교 출판부.

Finnegan Ruth

1977.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M.B., Parten

1932. “Social Participa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7.

Wellek, R. & Warren, A.,

1968. *Theory of Literature*, New York: Har court Brace World.